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 낸 건축가. 도시설계가 김.석.철.

from the ground, 육십에 다시 ‘출발선’ 앞에 선 도시설계 인생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
김석철 지음 | 생각의나무 | 368쪽 | 값 35,000원

단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 김수근 선생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다른 건축 전공자들처럼 곧바로 유학을 갔을 테고 지금처럼 도시설계, 도시계획에 손을 대지도 않았겠죠.”

그는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에서 김중업 선생을 떠나 김수근 선생을 만나면서 도시설계를 시작한 때를 ‘생애의 한 고비였다’고 고백하며 15개의 마스터플랜을 꺼내놓는다. 모두 36년 인생을 바쳐 완성한 도시설계안이다. 이 책의 미덕은 그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이 한 건축가 개인의 ‘작품집’에서 나아가 방대한 한국 도시계획사를 이룬다는 데 있다.

“지난 30여 년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도시건설, 설계는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원류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되돌아볼 것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고, 그 열정으로 완성한 결과물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십대 시절부터 학교 앞에 여관을 잡아두고 도시설계만 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열정을 다 바친 그는 건축물로만 쳐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작품들을 여러 점 완성했다. 예술의 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제주 영화박물관, 올림픽 파크타워 등. 그것뿐인가. 김수

엄한 건축가와 그의 제자가 있었다. 선생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천재’라 칭찬했지만 제자에게만은 늘 엄격했다. 20대 초반이었던 제자는 선생의 질책에 주눅이 잔뜩 들었던 터라 입영영장이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군대에 가긴 했지만 한쪽 귀가 안들린다는 이유로 귀향을 하게 된 그는 건축을 하는 본래 선생에게로 가지 않고 도시설계를 하는 다른 선생을 찾아갔다. 이미 환송연까지 한 상황이고 다시 돌아가서 힘들게 지낼 걸 생각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한국 건축 1세대였던 김중업 씨와 김수근 씨 밑에서 건축과 도시설계를 모두 공부한 건축가 김석철(60) 씨의 이야기다.

“김중업 선생은 엄격하고 섬세하면서 집요하게 한 일에 몰두하는 분이었고, 김수근 선생은 좀더 스케일이 있는 일을 하셨었죠. 두 분 다 건축에 대한 열의가 대

근 선생에게서 도시설계를 배우면서 도시계획자, 설계자라는 직함으로 다양한 마스터플랜을 내왔다. 예술의 전당 도시화계획, 도자기 엑스포 마스터플랜부터 쿠웨이트의 자하라 주거단지를 비롯해 베이징 경제개발특구 계획 참여까지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새만금에 바다도시를 세우자는 구상부터, 황해도시 공동체 안까지 내놓아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환경주의자들은 자연을 살리자는 입장이고, 정부 측은 또 다른 경제효과들을 기대합니다. 뜨겁고 찬 것이 대결구도로 서지요. 제 가 낸 안은 양극단을 포용하자는 뜻에서 낸 일종의 해법입니다.”

그가 내놓은 ‘초월적 해법’의 골자는 이렇다. 이미 축조된 방조제 위에 바다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바다와 갯벌을 살리고 본래 목표였던 전북 발전도 함께 이루자는 것이다. 특히 그 대상지가 방조제 일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로 설정돼 있다는 데서 주목을 끈다. 그는 경제효과가 도시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동북아경제중심’을 전제로, 새만금에서 ‘황해도시 공동체’를 마련하자고 강조한다.

“물론 그동안 제 마스터플랜이 미완에 그치거나 반영이 안 된 예를 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의도, 서울대, 보문단지 등 과거에 제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마스터플랜 중에는 미완에 머무른 것도 있고 크게 왜곡되어 시행된 것도 있다. 예컨대 스물아홉에 시작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경우는 당시 통치권력이 여의도 중심에 5·16 광장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좌절을 맞본 케이스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시절 말이지요. 다시는 도시에 손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자의 왜곡된 의지에 따라 기형화된 도시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의도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도 가만히 고수부지를 보고 있으면 또 다른 생각들이 듭니다.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때 바꿨던 시간과 열정들이 보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남은 시간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열정들을 떠올리며 여의도를 자주 찾는다. 그러다보면 건축과 인연을 맺은 시기들부터 떠오른다. 경기고등학교 시절 사서삼경을 하루 세 시간씩 읽고 다녔던 그는 건축을 통해서도 철학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득한 박종홍 선생의 권유에 따라 건축과에 들어갔고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설계, 건축을 구상하는 데 전념했다.


“가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학문은 논리, 수학, 그림기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는 총체적인 학문이지요. 도시설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스케일이 있는 작업이고요,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전부를 설명해

야 합니다. 수치는 물론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때문에 35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를 2개 이상 제출한 적도 많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도시설계를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이번 책도 좌절이나 후회보다는 반성할 부분을 찾으며 써나갔다. 60세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낸 책이다. 특히 새만금 해양도시 마스터플랜에 열중한 나머지 건강을 해쳤기 때문에 녹음을 한 후 글로 옮겨 완성한 책이라 더욱 애정이 간다. 약 3개월간 조용한 경북궁 안에서 녹음을 하면서 청와대 근처의 전경들에게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사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36년간 도시설계에 진력해 온 그는 줄곧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를 완성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12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17군데나 있다는 맨해튼처럼 우리나라에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도시계획안을 그렸다.

“저는 ‘from the ground’ 라는 말을 잘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지요. 건축가에게는 주어진 현실이 캔버스이지 빈 캔버스는 없습니다. 엉망인 캔버스를 받고도 설계를 할 수 있어야겠지요. 새만금도 그렇습니다. 제 계획을 수용한다면 건현 이후 한반도를 가장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 후 곧바로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도올 김용옥의 말을 빌리면 “과호한 구석이 있는 자는 ‘천재’인데 김석철 씨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천재’의 끼가 다분한 사람”이다. 이 말을 증명하듯 그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찾는다. 공자가 태어난 곡부 지역에 중국과 공동으로 해상공단을 완성하는 것이 다음 목표다.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저는 ‘from the ground’ 라는 말을 잘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지요. 건축가에게는 주어진 현실이 캔버스이지 빈 캔버스는 없습니다.”